

# 출판물 '팬시화' 현상 심각하다

## 우리 북디자인의 몇가지 문제점

책을 감싸고 있는 표지는 책의 내용을 은유한다. 우리가 아무런 예정없이 서점에 들렀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손을 유혹해오는 것은 책의 얼굴, 즉 표지다. 우리는 아주 가끔씩 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표지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또는 읽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 덜컥 사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얼마전부터 서점의 점두에서 가끔씩 눈에 띄는 하드커버의 4·6판짜리 소설책은 내용과 작가의 이름도 보기전에 갖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만큼 책의 외양이 독자의 손길을 유혹해오는 정도는 책에 대한 사전정보만큼이나 직접적이다.

### 현란하다 못해 장난기가 느껴지는 장정 많아

지난해말 윙핑에서 열렸던 제2회 편집디자인 세미나에서 북디자인 서기훈(경원대 교수)씨가 발표한 몇가지의 설문조사 내용은 책읽기의 욕구와 표지의 함수관계, 나아가 우리 북디자인의 현실을 부분별로 조목조목 수치를 들어가며 짚어보인다. 이에 따르면 사전정보 없이 책을 구입하는 경우 책의 표지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책을 구매할 때 선택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표지의 디자인이다.

그러나 이만큼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북디자인이지만, 그 막강한 영향력에 비해 우리의 표지디자인은 아직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음을 설문문의 통계는 보여준다. 많은 독자들은 우리의 책표지가 화려해지기만 했을 뿐 과거와 비교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로 시작하여 우리의 북디자인 현실에 대해 고수위의 불만을 터뜨린다. 좋은 북디자인의 전제가 되는 표지·내용·제목이 잘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고 대답한 숫자에 비해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독자의 수는 3배나 많다. 많은 독자들은 책표지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유행을 따르는 경향이 짙다고 지적한다. 결국, 독자의 눈길을 흡족하게 만족시켜 주는 장정이 드물다는 이야기다.

굳이 설문조사에 기대지 않더라도 서점의 점두에서 이와 동일한 느낌을 누구나 한번쯤 가져보았을 것이다. 특히 요즘에는 책을 위한 장정인지 장정을 위한 책인지의 구별이 잘 안되거나, 너무 시각적인 요소에 치중하다 보니 현란하다 못해 장난스럽기까지한 책표지들이 쏟아진다. 가령, 표지의 제목에 금박, 은박을

### 북디자인의 막강한 영향력과 중요한

기능에 비해 아직도 우리의

표지디자인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많은 독자들은 요즘의 책표지가

화려해지기만 했을 뿐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비슷한 디자인의 난무로 그

책이 그 책 같아 혼란스럽고 표지와

내용, 제목이 서로 겹도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띄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입힌 제목이 등장하고 거기에 더하여 압형기술을 도입하여 돌출의 효과까지 내는 게 요즘 책표지의 유행이다. 또한 미학적인 측면이 고려된 사용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저 남의 눈에 얼른 띄기 위한 무분별한 컬러의 사용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1년만에 다시 문을 연 교보문고의 정식회 홍보과장은 그 1년 동안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 “전반적인 느낌은 더 세련돼진듯한데, 그와함께 무척 화려해졌다. 1년만이지만 변화가 눈에 확연히 띠 정도이다. 또한 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서가에 꽂아놓은 책의 등이 하얀색이 주조를 이뤘는데, 이제는 갖가지의 색이 등장 오히려 흰색이 눈에 띄는 색상이 되고 있다”며 갈라화를 요즘 책표지의 특징으로 든다.

최근의 이같은 특징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은 표지의 ‘팬시화’ ‘키치화’ 경향을 든다. 특정 캐릭터를 회화화한 그림이나 앙증맞은 모양으로 청소년 대상의 문구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에 주로 사용되었던 디자인의 한 기법이 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 민음사의 박상순(미술부장)씨는 “귀여운 제목자의 사용이나 장난기어린 표지 구성, 근거없이 현란한 색상 등을 사용한 책이 그 예로, 디자인의 한 방법론으로 선택된 팬시화나 기존형태에 대한 이유있는 전복으로서의 실험성 짙은 키치화가 아니라 청소년층의 기호나 대중문화의 현상을 덩달아 쫓아가는” 이같은 현상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

### 독자의 요구 무시한 판형의 단조로움

이와함께 북디자인의 형태상의 문제로 판형의 단조로움을 지적된다. 아동용이건 성인물이



잘 만들어진 책장정에 주어지는 국내 유일의 상인 '교보문고 북디자인상'. 사진은 올해(제3회) 수상작 심사과정.

건 이론서건 소설물이건에 상관없이 우리의 책은 대부분이 A5신 크기다. 형태의 단조로움 만큼이나 수장용 양장본이나, 읽고버리는 페이지 퍼북 등 이용용도에 따른 책상품의 다양한 개발없이 우리의 경우 대부분이 반양장의 형태로 획일화되어 있다. 최근들어 조금씩 다양해지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나 아직 독자들의 요구에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책의 고급화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독자들의 요구가 의외로 높음(85%)을 알 수 있다.

몇년전 4·6판 크기에 하드커버로 번역소설을 출판, 독자들로부터는 상당한 반향을 얻고 한때 이같은 형태의 소설집 출판붐을 일으켰던 출판사가 최근 개정판을 내면서 모처럼 시도했던 4·6판을 버리고 슬그머니 A5신으로 회귀해버린 사례는 우리의 책상품에 왜 판형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보게 한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출판용 용지는 4·6전지(4·6판 크기의 64배)와 국전지(국판 크기의 32배) 두 종류뿐이다. 용지의 생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만들 책의 형태에 맞춰 종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맞춰 책의 크기를 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원하는 형태대로 책을 꾸밀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면 버리는 종이분이 많아 생산단가가 올라간다. 두 종류의 종이 가운데서도 국전지를 사용하여 A5신 형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낭비가 없으니 출판사에선 당연히 적은 원가가 드는 A5신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북디자인이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책의 성격에 맞는 본문구성과 표지디자인을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이것이 한 원인이 되기는 하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북디자인이 출판의 중요 분야로 뿌리내릴 수 없게 한 출판구조의 문제도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앞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북디자인의 제작실정을 보면 그 결정과정에서 전문디자인사의 의견보다 경영자나 편집부의 의견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으며, 본문은 편집부에서 표지는 외부 디자이너에 의뢰, 따로 제작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디자이너와 편집자가 기획단계에서부터 내용을 토론하며 디자인방향을 설정하기보다, 본문교정이 끝나갈 무렵 제목과 내용을 요약 1~2주의 기간을 주고 표지완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자체내 디자인파트가 독립돼 있는 출판사도 많지만 현재 북디자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10~20명을 채 꼽기 힘든 상황에서 5천개가 넘는 출판사가 연간 쏟아내는 수만종의 책은 어쩔던 표지를 만들어놓고 서점에 나온다.

### 북디자인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이같이 책의 기획·진행 단계에서 전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한 여건에서 편집인들이 북디자인자들에게 무조건 불만(앞의 설문조사 ①책의 성격과 내용의 이해 및 그 표현의 부족 ②디자인 기법에 치중 ③창조성 결여)만은 터뜨릴 수 없을 듯하다. 드러나는 현상으로서의 북디자인의 문제만을 지적하기 이전에 북디자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하고, 북디자인계 역시 내부의 자체 반성이 있을 때 표면의 문제는 서서히 해결점을 찾아나갈 듯 보인다.

— 정혜옥 기자